

News

시중 풀린 돈 3천조 첫 돌파...균형 수준보다 8%나 많아

연합뉴스

넘쳐나는 유동성이 의도했던 투자와 소비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 가격을 밀어 올리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져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천18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3천조원을 넘어...4월 한 달만 34조원(1.1%) 늘어...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

투기성 다주택자 중부세로 더 옥죄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 등
먼저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중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부세율 0.6~4.0%까지 올라

5대은행 대출 1천200조...올해만 69조↑ '과속'에 건전성 비상

연합뉴스

5대은행, 6월 말 기준 원화대출액은 총 1천208조9천22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68조8천678억원(6.04%) 늘어...각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
최근 시중 유동성이 크게 불어난데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뿐 아니라 초저금리로 문턱이 한층 낮아진 대출 자금이 급증한 영향

여전사 자본건전성지표, 17년만에 손본다

머니투데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해주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7년만에 바껴...조정자기자본비율이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여전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자금 경직 현상을 보였기 때문...특히 캐피탈사들은 신용등급이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어려움 겪으

보험권 "디지털화, 개인정보 유출·금융소외 위험 높아"

한국금융신문

디지털이 보험산업에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디지털화로 인해 소비자는 보다 개선된 고객경험을 제공받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험사의 제3자 서비스 이용이나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기술회사나 플랫폼 제공자와의 다양한 협업모형을 통해 보험 가치사슬의 분절화가 심화

초저금리에도 보험사 국공채 보유 늘려...한화생명 1조 이상 증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말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해외투자비중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높였지만 일부 주요 보험사들은 국공채 보유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화생명 올해 4월 유가증권 중 해외투자(외화유가증권)를 올해 1월 대비 1조6,421억원, NH농협생명은 3,320억원 축소...KDB생명 5,434억원, 동양생명 1,657억원 해외채권을 늘

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금감원 분쟁조정 가르마 탄다

연합뉴스

금감원,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 짜기에 돌입...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주요 사모펀드만 20개가 넘어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천억원...이와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천3건...시장의 관심은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 펀드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 가입...의무가입기간 5년은 단축 검토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을 담을 예정
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고 2천만원인 연간 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